2020년 10월 11일[제 40권 41호]

Two 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자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11: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21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십자가	노피어 찬양단 찬양 주님의그모든것이
고백과 헌신	교독문 41. 시편 97편 신앙고백 찬송 182장 기도 안선명 집사	기도 김순열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유한나 자매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잠언 16장 16~18절 (구약 927) **최선을 다하는 삶의 문제**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436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거리마다 기쁨으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가정 예배

10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김순매 권사
축제예배 정일숙 권사
젊은예배 이창수 형제

[봉헌]

전통예배 나승미 정현숙
축제예배 김영일 임경진
강미령 정은주 최현순
젊은예배 김솔 임소은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11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강애진 남순자

[축제예배]

장성운 임채민
김은희 김해숙 김화심

오늘의 말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문제

[잠언 16장 16~18절]

첫째, 지혜를 얻기 위해 (　　)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　　)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잠언 16:1-10]

W
WELCOME
환 영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시다.

W
WORD
말 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써봤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 환경을 통해 확신을 얻음 / 감정을 통해 확신을 얻음 /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음 / 제비뽑기 / 기도 응답을 받음 / 사람들의 조언을 들음 / 예배에서 감동을 얻음 / 신앙 서적을 읽음 / 불현듯 깨달음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1, 9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2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3절)

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5절) 악을 떠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7절)

3.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골라보고 서로 나눕시다.
-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2절)
-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므로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3절)
-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4절)
-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5절)
-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6절)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7절)
-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9절)
- 기타

4. 위에서 고른 답변을 한 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4) 축복기도

훈련을 통한 도전 (1)

- 청년B-1목장 옥임석 형제 -

안녕하세요. 청년 B-1목장 옥임석 청년입니다.

지난 제자학교 훈련 전 저는 예일교회에 온지 1년도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의 길로 가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정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캠프와 14주간의 양육반 훈련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는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생명이라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육반을 은혜로 수료하고 방학 기간이 지나 제자학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질병으로 양육과 훈련은 물론 모든 봄 사역이 무기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영적 기대감과 수레바퀴의 삶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양육반 훈련 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5월부터 훈련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학교 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행복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훈련에서 행복모임에 대해 배운다고 하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행복모임은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다리와 같습니다. 저는 행복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행복모임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있는 모임입니다. 훈련을 통해 그런 행복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제자학교 훈련동안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수레바퀴의 삶이 저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점이 되지 않기 위해 거의 반강제로 수레바퀴의 삶을 지켰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서 강제가 아닌 제 의지대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체질화가 된 수레바퀴의 삶은 영적 유익을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저에게 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생활을 하였다면, 수레바퀴의 삶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제자학교 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제자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영적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불안감이 생기면 감정조절을 못하고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계속되는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훈련기간 중에도 불안장애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올 때 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시간에도 계속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자학교 훈련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절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훈련에 매주 참석하였고 수레바퀴의 삶을 계속 붙잡으면서 불안장애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안장애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연약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다음주 계속 -

목회칼럼

나를 본받으라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지 23년 만에 우리나라 사람이 목사, 장로가 되어 최초로 노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총회를 조직하여 민족 복음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초대 목사님 중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교회의 영수(초창기 한국교회의 직분) 때 장로 시무 투표를 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한 사람도 반대와 기권이 없고 100% 길선주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길영수님! 어째서 100% 찬성입니까? 적어도 당신은 반대하거나 기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길영수님이 일어나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교회에서 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내 이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이단과 세속 풍습이 들어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때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빌 3:17)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배만 채우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는 사람, 즉 육을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매일 연회를 열고 먹고 마셨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니 약을 먹고 다 토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셨습니다. 하수구가 토한 것 때문에 푸른빛이 났다고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하수구의 푸른빛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경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앞장서야 공동체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자랑하지 말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종 못된 죄를 지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커다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용원들의 임금 안주고 하도급 업체 등쳐서 궁궐같은 저택에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

입니다.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범법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공무원들이 횡령을 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직분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웁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바울 당시 「에피큐리어니즘」이 성행하였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쾌락주의인데 영만 깨끗하면 육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개처럼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견유학파, 개유학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도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면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을 보게하고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과거의 정치인 중에는 국민에게 땅만 바라보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열광하게 하였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게 합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게 하고 성을 보편화하고 유해한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천국을 보게 해야 합니다. 높고 넓은 하늘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늘에 찬란한 태양을 보게 해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뜨고 주의 나라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못한다 해도 성도들만이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가을사역을 위해서
- 가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온 성도가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우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세계적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사역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하루 속히 현장 사역이 열릴 수 있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이은숙 권사
- 친정어머니께서 수요일에 두차례 의식을 일으셨고, 보건소심장내과에서 심방이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종병원에 오셔서 부정맥이 의심된다하여 검사중이십니다. 두차례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중에도 함께 하셔서 원인을 찾아 치료 잘 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 김은숙 간사
- 청소년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과 훈련, 해피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맺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소서.
-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열리게 하소서.

금주의 감사

- 베스트가 행복모임에 초청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염려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베스트의 마음을 게속해서 만져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 목장식구들을 세워주시고 모이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감사한 삶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 친정에서 코로나10로 인해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들과 식사하며 풍성한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항상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주 소식

1. 주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사역들, 일상생활들이 정상화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오늘 축제예배 후에는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화~금) 오전 10시 온라인 사역기도회가 진행중입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기도하며 가을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4. 월요도고기도회가 릴레이 기도회로 대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시간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가을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2월에 러시아(블라디보스톡)로 8호 단기선교사가 파송됩니다. 파송될 선교사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재정후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후원 담당 : 이해경 권사 / 기도 후원 담당 : 김한규 형제)

6. 리더반이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목자, 인턴, 행복모임 리더들과 훈련생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3목장(박영자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데니스 형제 (섬김이 : 진우성 형제)
백인준 형제 (섬김이 : 사공세진 형제)
이서영 자매 (섬김이 : 유한나 자매)
최지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형제)
NING 자매 (섬김이 : 이혜수 간사)
서엘준 형제 (섬김이 : 김태완 형제)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11시
절 은 예 배	주일 오후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주일 - 금 새벽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